



# 보 도 자 료

문 의

서울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 최기성 실장(02-3660-1824), 이은경 책임(1894)

NPR 진신혜 과장(02-2257-6370), 박지영 대리(02-6949-6191)

## ‘모빌리티의 혁신, CES 2023’ 기술교류세미나 성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모빌리티학회 공동 개최 -

- ◆ CES 2023에 참여한 국내 주요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의 경험 공유 위해 마련
- ◆ 8개 스타트업 참여, 산학연관 및 투자사들과 모빌리티 미래 공유
- ◆ 지난 6일(목),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 강남훈 겸 서울모빌리티쇼조직위원장)와 한국모빌리티학회(회장 이종욱)가 공동으로 개최한 ‘모빌리티의 혁신, CES 2023’ 기술교류 세미나가 지난 6일(목)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023서울모빌리티쇼(Seoul Mobility Show 2023)’와 연계해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본 세미나에서는 CES 2023에 참여한 국내 스타트업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투자, 기술 등의 지원 방향 등이 논의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IVI) 솔루션 전문기업 ‘드림에이스’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솔루션 전문기업 ‘모라이’ ▲4D 이미징 레이더 센서 제조기업 ‘스마트레이더시스템’ ▲3D 라이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서울로보틱스’ ▲자율주행 라이더 센서 전문기업 ‘에스오에스랩’ ▲5G NR V2X 스타트업 ‘에티포스’ ▲자율주행 모빌리티 솔루션 개발 전문 기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자동차 전장 부품 전문 기업 ‘카네비모빌리티’ 등 총 8개사가 연사로 참여했으며 정구민 국민대학교 교수의 ‘CES 2023 모빌리티 주요 동향’ 발표와 함께 패널 토의가 이어졌다.

참여 업체들은 CES 2023 혁신상 수상과 전시 등 CES 2023 참여 경험을 공유하고, 2023년 사업 방향과 전망을 발표했다. 또한, 이어진 간담회와 패널 토의를 통해서 모빌리티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발표자들은 해외에서 투자 동향처럼 단기적인 투자가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모빌리티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투자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또한, 이종산업 간의 융·복합이 가속화되면서 한 기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우며, 모빌리티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업체 간의 협력이 중요하며, 스타트업의 협력모델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좌장을 맡은 정구민 국민대학교 교수는 “모빌리티 산업은 타 산업보다 사업화의 장벽이 높은 만큼,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또한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과 이종욱 한국모빌리티학회 회장은 “앞으로 정부 관련 부처 및 국회 모빌리티 포럼과 협력하여 모빌리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약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세미나의 한 참가자는 “해외 시장에서 활약하는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의 회사들이 많아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 기대된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31일(금)부터 4월 9일(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3서울모빌리티쇼는 약 51만여 명이 방문한 가운데 모빌리티를 주제로 본격적인 융·복합 전시회로의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주며 막을 내렸다. 서울모빌리티쇼는 세계자동차산업연합회(OICA)가 공인한 국내 유일의 국제 모빌리티쇼로 2025년에 다시 개최된다.

#### \* 사진자료 4종

#### \* 사진제공: 서울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

사진은 별도 제공해드린 파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파일별 캡션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진자료 1] 지난 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모빌리티의 혁신, CES 2023’ 기술교류세미나 기념사진

[사진자료 2] 한국모빌리티학회 이종욱 회장이 지난 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모빌리티의 혁신, CES 2023’ 기술교류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자료 3]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강남훈 회장이 지난 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모빌리티의 혁신, CES 2023’ 기술교류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자료 4] 지난 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모빌리티의 혁신, CES 2023’ 기술교류세미나 현장사진

[사진자료 5] 자율주행 라이다 센서 전문기업 ‘에스오에스랩’ 정지성 대표가 지난 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모빌리티의 혁신, CES 2023’ 기술교류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